

## 융화된 모습으로 도약의 전기 마련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에 재임된 나춘호씨



재임인 만큼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출판계가 도약의 전기를 이룰 수 있도록 무엇보다 유통구조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모두 한뜻이 되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당선된 기쁨보다 중책을 맞게 된 것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재임인 만큼 할 일이 더욱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위기에 직면한 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3대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에 선출된 나춘호(예림당 대표)씨의 상기된 소감이다. 지난 2월 25일 세계일보 대강당에서 가진 정기총회 이사장 선거 결과 총 투표인 수 629명 가운데 319표를 얻은 나회장이 3년 임기로 재임됐다.

나회장은 임기 동안 무엇보다도 유통구조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1세기형 출판인프라를 구축할 유통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이미 확보한 50억원으로 독일 등 선진국의 유통기법을 적극 도입할 생각이다. 정부의 예산 및 제도적 뒷받침을 얻어 정보전산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한편,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출판유통 및 기타 유통기구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통현대화 뿐만 아니라 출판산업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정부 로비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출판인 모두가 한뜻이 되어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합니다.”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지지했던 출판인이 많았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나회장은

“회원들이 흩어지지 말고 모두가 한뜻으로 출판산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출판인 모두가 융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출판을 살려 나가는 데 우리 몫이 있습니다. 다같이 출판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회원들의 융화된 모습과 조직의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나회장은 젊고 참신한 회원들을 대거 영입할 계획이다. 각종 대책·분과위원회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명예이사제를 도입, 선배 출판인의 참여를 제도화할 뜻도 비쳤다. 조직정비와 함께 현안 문제인 ▲도서정가제 유지 ▲불법복사 근절 ▲방문판매법의 현실성 있는 개정 ▲누적된 재고도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출판인프라 구축을 위해 ▲출판 전문인력 양성 ▲출판물 우편요율 인하 ▲출판인 제교육의 제도화 등의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우리 출판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통일한국의 출판 기틀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판산업 전반이 어려운 시점에서 다시 중책을 맡게 된 나회장의 포부가 자못 비장하다. — 김지원 기자

## 개혁의 열망 실어 젊은 조합으로 탈바꿈

한국출판협동조합 새 이사장에 최선호씨



조합의 혁신과 개혁을 열망하는 젊은 출판인의 뜻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동안 3백 곳 이상의 출판사가 책을 서점에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겁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의 제23대 이사장으로 최선호(세계사 대표)씨가 선출됐다. 2월 23일 세계일보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조합’은 임기가 만료된 박기봉 이사장(비봉출판사 대표)의 후임을 맡을 이사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총 유효표 407표 가운데 214표를 얻은 최선호씨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3년 임기를 맡게 된 그는 젊은 ‘조합’으로 탈바꿈시킬 포부를 밝혔다.

“제가 당선된 것은 조합의 혁신과 개혁을 열망하는 젊은 출판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은 현재 470여 회원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조합을 통해 도서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사가 200여 곳이 넘고 있다. 현재 시설로는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임 이사장은 이를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꼽았다.

“과주에 이미 매입해 놓은 땅에 첨단, 그리고 현대화된 물류센터를 건설하여 유통혁신을 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조합으로 키울 것입니다.”

그는 ‘조합’을 개혁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전산화 등을 통해 21세기에 맞는 선진유통시스템을 마

련할 계획이다. 전문도서와 일반도서의 공급체계를 분리해 전문화시킬 복안도 가지고 있다. 내부 개혁을 통해 조합원의 여신 이용이 편리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도록 분위기를 쇄신할 것이다.

46년 전통을 지닌 ‘조합’은 젊은 대표를 맞이해 변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오래된 전통에 비례하여 누적된 피로의 두께가 두텁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임 이사장은 젊은 출판인을 중심으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작정이다.

“조합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저를 밀어준 분들의 의지가 거기에 닿아 있다고 믿고 개혁작업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제 임기 동안 3백개 이상의 출판사가 서점에 책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출판사와 유통회사를 운영한 경험을 가진 신임 이사장은 추진력이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오랜 전통을 가진 ‘조합’의 수장으로 임성한 젊은 이사장의 의지가 향후 어떤 결과로 나타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오완진 기자